

사드여파 불구 외국인 관광객 늘었다

전주시, 스포츠·문화·관광 시너지로 14.42% 증가... 유치 활동 효과 '특독'

사드영향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FIFA U-20 월드컵 기간 동안 펼친 스포츠, 문화, 관광을 결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62,581명보다 14.42% 늘어난 71,466명으로 조사됐다.

FIFA U-20 월드컵 개막 기간인 5월 한 달의 경우는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만7,9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551명보다 15.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U-20 월드컵 유치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방문객 분석에서도 U-20 월드컵이 열린 5월의 경우 U-20 월드컵 전주경기 참가국가인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베트남, 에콰도르, 이탈리아 응원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방문국가 수에서도 5월에는 46개 국가 방문객이 전주를 찾아 지난해 4월 38개 국가를 앞질렀다.

U-20 월드컵 예선전과 16강전이 열린 5월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46개 국가 1만7,974명 가운데 중국이 사드영향에도 불구하고 5,557명으로 전체 41.3%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이 2위 14.9%, 우즈베키스탄 3위 12.9%, 잉글랜드 4위 8.6%, 1,150명, 미국 5위 8.0%, 1,08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드영향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FIFA U-20 월드컵 기간 동안 펼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U-20 월드컵 경기에 참가한 나라의 방문객 수는 전주에서 3경기를 치른 잉글랜드가 가장 많은 8.6% 1,150명이 전주를 찾았으며, 다음은 전체 6위를 기록한 아르헨티나 4.6% 624명, 은두라스와 예선 경기를 펼친 베트남이 전체 8위 4.3% 581명, 세네갈과 예선전을 치른 에콰도르가 전체 22위로 101명이 전주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관광객의 경우 사드영향이 있기 전인 올해 1월에는 8,372명, 2월엔 7,404명이었으나 사드영향을 받기 시작한 3월에는 5,939명, 4월엔 4,846명,

5월엔 5,557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타이완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그리고 잉글랜드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까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5개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도 영미권 3,017명, 일본 2,731명, 중국 2,163명, 타이완 401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 관광목적지 불거리와 교통안내, 음식, 숙박정보를 안내받

는 등 외국인 개별자유여행객(FTT)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중국발 사드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은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한 문화 월드컵 행사, 동남아시아지역으로 눈을 돌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 관광안내 등 관광환대서비스, 관광패스 관측 등과 함께 이뤄낸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결합된 삼위일체 유치 전략의 성공적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재용 기자

병으로 지인 내리친 50대 구속

술자리에서 의견차가 생기자 소주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술자리에서 의견차가 생기자 소주병으로 지인을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A(53남)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금양동 자신의 집에서 지인 B(48남)씨에게 머리를 유리병으로 내리치고 발로 밟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향소심서 학교폭력 기재관련 벌금 700만원 선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사실오인 위법 있어'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향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에 불리요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지난 17일 상고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 자율권 침해에 대해 지위권 발동으로 한 행위를 향소심 재판부가 형법의 고의 과실 개념으로만 좁게 판단했다"며 "교육부의 감사 자체도

위법한 감사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상당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향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 교육감)도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거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향소심 재판 직후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교육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판결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다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숨은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 찾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위' 구성 열심 훼손 막아

전주시가 사라질 수도 있는 시민들의 생활 속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100년 후 대표적인 보물로 만들기로 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생활유산 등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전주의 문화유산을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관리하고,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해 미래유산 보존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유산은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 자산 등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선정하는 문화유산으로, 도시의 구성원이자 기억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100년 후 전주를 빛내는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는 박순중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역사학자와 문화재전문가, 일반시민 등 24명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전주시 미래유산 관련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시는 위원회를 통해 전주시민들의 추억을 담은 유·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보존·활용해 전주시의 미래 보물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억의 장소와 오래됐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무형문화연구원을 통해 전주시 미래유산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전주시 미래유산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오는 9월 전문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통해 미래유산의 선정을 심의하고, 심의의결한 미래유산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도라지 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한·중 FTA 발효 일인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고, 지난해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입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도라지 생산자,단체다.

지원 기준은 1㎡당 약 173원(추정금

액)으로,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대상자는 현지 조사와 심사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따라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도라지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대상자는 한평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문 열고 냉방영업' 이행실태 점검 에너지 절약 유도

전주시는 18일 전주지역 상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홍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문 열고 냉방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